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 일 시 | 2023. 7. 6.(목) 14:00

| 장 소 |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

주최/주관  창원특례시  경남신문

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한국평생교육사업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 일 시: 2023. 7. 6.(목) 14:00 ~ 16:00
- 장 소: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
- 주최/주관: 창원특례시, 경남신문
- 후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세부일정

사회자: 강도경(직원MC)

구 분	시 간		내 용
등록	13:40~14:00	20'	■ 행사등록
개회	14:00~14:05	5'	■ 개회
	14:05~14:15	10'	■ 인사말씀
	14:15~14:20	5'	■ 기념촬영
SESSION1	14:20~14:35	15'	■ 기조강연 국가평생교육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강대중(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4:35~14:50	15'	■ 주제발표 1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4:50~15:05	15'	■ 주제발표 2 평생학습도시 창원, 재도약을 위한 과제 이희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ESSION2	15:05~15:50	45'	■ 종합토론 좌 장 이원근(창신대학교 총장) 토론자 김경희(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영화(경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진흥팀장) 이우완(창원특례시의회의원) 김태호(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장)
	15:50~16:00	10'	■ 질의응답
폐회	16:00		■ 폐회

CONTENTS

목차

I 개 회

1. 개회사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5
-----	----------	---

2. 환영사

김영선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의원	9
강기윤	창원특례시 성산구 국회의원	15
최형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19
윤한홍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23
이달곤	창원특례시 진해구 국회의원	27

3. 축 사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31
유원석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35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39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43
신민선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47

II SESSION1

1. 기조강연 - 국가평생교육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53

2. 주제발표 1 -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67

3. 주제발표 2 - 평생학습도시 창원, 재도약을 위한 과제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79

Ⅲ

SESSION2 종합토론

1. **김경희**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97
2. **고영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진흥팀장 103
3. **이우완**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111
4. **김태호** 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장 117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I 개 회

1. 개회사
2. 환영사
3. 축 사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개 회 사

홍 남 표

창원특례시 시장



개 회 사



창원특례시 시장
홍 남 표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시장 홍남표입니다.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포럼에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 관내 6개 대학교의 관련 부처장님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2004년, 일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창원시의 슬로건은 「Young City」였습니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세 개의 시가 모여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고 2022년 창원특례시로 승격되는 등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졌고,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은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풍부한 인프라와 지역 기반 학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1995년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상임이사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국내외 교육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교육부에서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평생학습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창원시의 평생학습 현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위기 앞에서 어쩌면 지역 정주여건 해결의 실마리를 평생 학습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생학습이 지역의 대학, 기업, 여러 관계 기관들을 연계하는 허브가 되어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이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고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평생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창원시에서는 심도깊게 논의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환영사

김영선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지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평생교육 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편, 산·학·연·관 연대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게 위해 『2023 창원특례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 지방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창원시민 여러분과 평생교육관계자 제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정책포럼의 기초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님,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님, 김경희 경남대학교 교수님, 이우완 창원시의원님, 김태호 창원시 평생교육과장님, 고영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팀장님,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다시 없을 불세출의 성공 신화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 국민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기반이었습니다. 각국의 석학과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교육의 힘을 꼽으며, 배우고 익히기에 힘쓰는 한국 사회를 칭송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 역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AI, 인공지능, 딥러닝,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가 이미 시작되어 로봇을 활용한 기술과 인간의 노동력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동시장, 산업구조, 경제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 진입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같은 거대한 도전에 대한 맞선 우리의 새로운 해법도 역시 ‘새로운 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은 ‘평생교육’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기초소양을 습득토록 하는 데에 교육의 주안점이 있었으나, 기대여명이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형 사회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자기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이 올바른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에 참여해 다양한 소양과 전문지식, 참신한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미 “모든 근로자의 50%는 5년 내 재교육(re-skilling: 재역량강화)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일부 생애주기에 집중된 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제2의 지식정보화 교육도 절실합니다.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정규교육에 우리 교육 예산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을 높여 산업수요에 알맞은 재역량강화, 평생학습을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오늘 2023 창원특례시 평생학습 정책포럼이 이러한 혁신의 비전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 창원시는 이제 창원시

의창구에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중심의 제2국가산단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스스로 산업수요를 충족하고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선도하는 독창적인 힘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당당한 모델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입법과 정책을 통해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형태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驚蟄)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푸르게 옷을 입은 자연이 훗날의 결실을 맺기 위해 땀방울을 감내하며 풍성한 생명의 기운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정책포럼 역시, 각종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발전 여건을 포착하여 충실한 대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환영사

강기윤

창원특례시 성산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창원특례시 성산구 국회의원
강 기 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강기윤입니다.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생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나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점은 지방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위기는 오랜 과제입니다. 점점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창원시의 평생학습이 재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창원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창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환영사

최형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최 형 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창원시 평생학습 유관부서, 기관 관계자 및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300여 분이 모인 가운데 창원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주최하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특례시와 남길우 대표님을 비롯한 경남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사 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후원에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를 해 주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 이희수 중앙대 교수님, 이원근 창신대 총장님을 좌장으로 지정 토론에 나서주실 김경희 경남대 교수님, 이우완 창원시의원님, 고영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팀장님, 김태호 창원시 평생교육과장님의 수고에도 격려 인사 드립니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국가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천명하고, 평생교육의 운영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이 평생교육 이념 하에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지방 교육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 해결책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정책포럼 주제처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삼고, 평생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가 2010년 통합창원시로 거듭난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줄어들며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책포럼을 통해 창원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 창원시평생학습 체재재편 방향과 과제 등이 논의 되고 평생학습도시 창원의 재도약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환영사

윤한홍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윤 한 홍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윤한홍입니다.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일생 동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평생교육법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평생교육이 교육의 영역을 넘어 더욱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구 유출,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지역과 밀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내 대학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새로운 활력을,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 갖추어진다면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창원이 다시 한번 최고의 평생교육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재편된 평생학습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희망이, 국가와 지역사회에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평생 교육 패러다임이 ‘평생학습도시’창원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환영사

이 달 곤

창원특례시 진해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창원특례시 진해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공교육특별위원장
이 달 곤

아름다운 양항(良港)·해군의 모항·36만 그루의 벚꽃 도시, 창원시 진해구 출신 이달곤 국회의원입니다.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부의 원천으로 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과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는 주민의 학습 기회뿐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슬로건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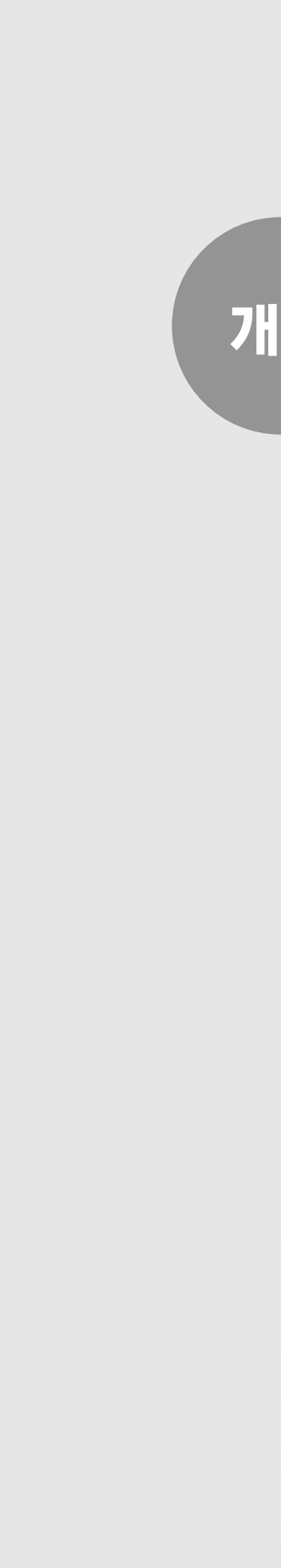
답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평생학습은 이제, 사회와 국가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사업의 무게가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평가를 극복하고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의 지평을 확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공교육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밀착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전 국민까지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조강연, 발제와 토론은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겸비하신 분들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최고의 혜안(慧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축사

김 이 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축 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 이 군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군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2023 창원특례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며 이번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기조 강연을 해주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와 뜻깊은 토론으로 논의에 함께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포럼은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창원특례시 평생학습의 재도약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주민들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창원특례시는 이번 포럼에서 개진된 내용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평생학습 체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지역 평생학습 진흥의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축사

유원석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축 사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 원 석

반갑습니다.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금일 창원시에서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강대중 원장님, 주제발표에 이희수 교수님, 구본우 연구위원님, 지정토론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양극화와 함께 지역이 점점 소멸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남은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밀양시를 제외한 10개 군부지역은 모두 해당되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이 점점 소멸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도 어렵습니다.

지역의 위기와 소멸의 해법을 평생교육에서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로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지역상생형 평생학습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축사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축 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광명시장
박 승 원

안녕하십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입니다.

먼저 2023 창원특례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님을 비롯하여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창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개최되었던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국회포럼에 이어 지역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간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전국의 87%에 달하는 196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강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도시 우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아시아 최초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을 가장 활성화시킨 진원지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특성과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지역과 시민이 직접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가 논의 과정에서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광역, 기초 단위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광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실행하게끔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아젠다를 지역에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시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조직과 예산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포럼이 지역 평생학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지방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단초가 되어 평생학습도시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럼의 결과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향후 우리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전국의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연대·협력하여 평생학습 현장의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허브로서 국가와 지방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축사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축 사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이 재 주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이재주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지방의 위기”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보면, 그것은 이미 새삼스러운 논제도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방소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듯이, 그 심각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위기, 지방의 문제인 듯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국가의 위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발전에 있어서의 격차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투자의 저량 축적 때문이었다고 OECD가 평가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핵심 투자영역의 하나가 교육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생교육의 보편화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창원특레시가 계획한 정책포럼은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큼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창원특레시의 인구변화 전망과 함께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도시

창원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 및 극복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평생교육체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어떻게 연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평생학습체제 재편 방향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발전하려면 평생교육을 논외로 할 수 없음이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대학과의 연계체제 구축 및 그 성과 제고를 지향하며, 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예산 지원 역량 증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원 특례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모범·발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포럼을 자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다각적인 실천 대안이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지원·조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축사

신민선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축 사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신 민 선

창원시가 지방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2023 창원특례시 평생학습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창원시는 평생교육으로 창원 시민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평생학습의 수준 향상을 위해 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형 평생학습도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포럼은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으로서 창원시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 31.9%, 비수도권 29.6%로 도시 규모별 차이가 있으며, 월 가구 소득별에서도 500만원 이상 34.7%, 150만원 미만 17.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별에서는 대졸 이상 40.3%, 중졸 이하 15.6%로 거의 세 배 이상 고학력 평생학습 참여가 높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평생학습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과 재정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평생교육 또한 지역 간 학습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재인식하고 함께 공생하기 위한 학습의 자세로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게 해주고 우리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엮어주기도 합니다. 학습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는 지역 사회로 확장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머물던 관점이 더불어 사는 공생적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경제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 인적 및 물적자원 개발 및 지역주민의 교육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교육 등은 이웃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문화와 자산을 함께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관심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상호 신뢰와 사회 통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사회 발전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서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적 시스템과 자생적 네트워크를 재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교육부도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비전으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원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에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활발히 작동할 때 평생교육은 지방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성장을 촉진하는 린치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정책 포럼이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II

SESSION1

1. 기조강연

- 국가평생교육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2. 주제발표 1

-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

3. 주제발표 2

- 평생학습도시 창원,
재도약을 위한 과제

기조
강연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국가평생교육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강 대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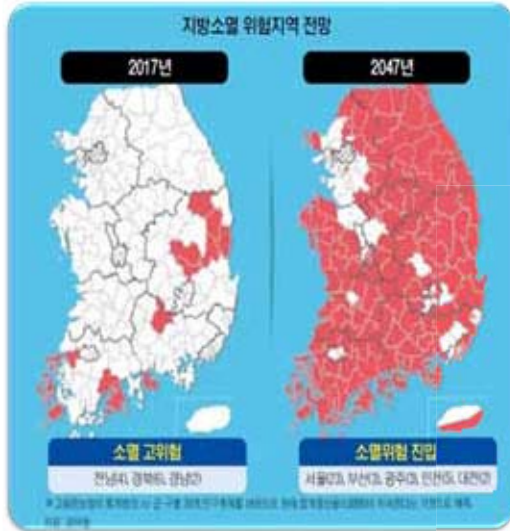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강 대 중(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사회변화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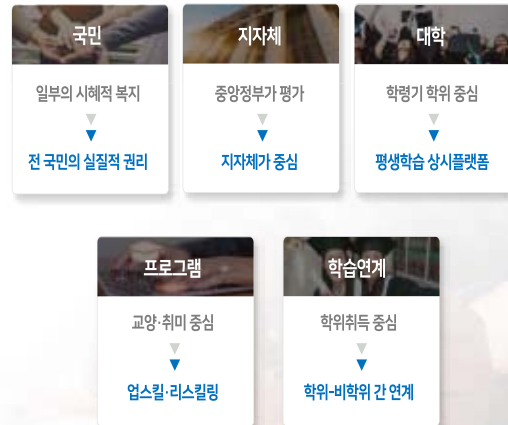
1 인구 구조 변동 - 지역소멸 위험



2 디지털 사회경제 전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1. 사회변화와 정책방향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 V자 반등 시나리오 : 사회경제적 활력의 회복 기대
- K자 양극화 시나리오 : 격차의 심화와 사회 갈등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지구와 인류의 미래
 - 심각한 기후 위기와 재난의 일상화
 - New Normal vs. Old Normal
 - 인류의 발전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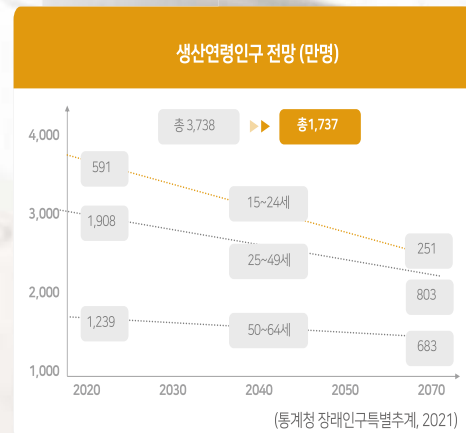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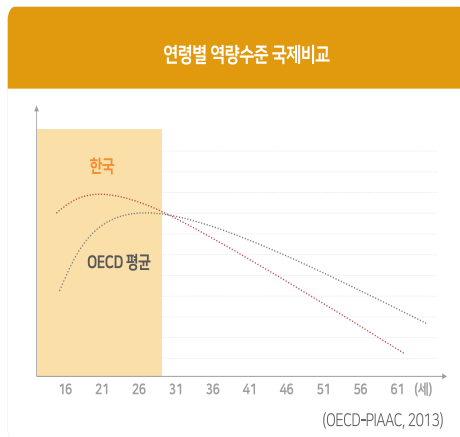


2. 국가 평생교육 정책 맥락

①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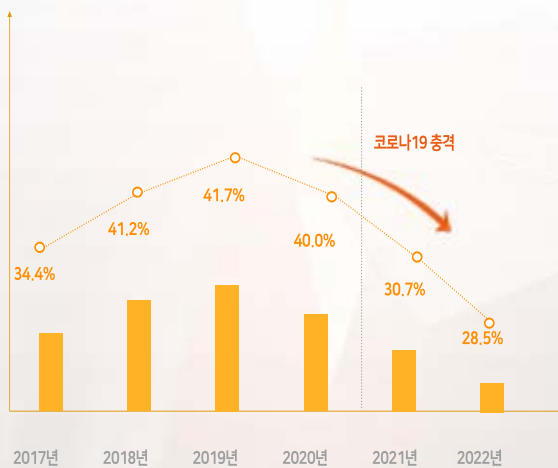
한국은 성인기에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예측됨

* 생산연령인구(만15~64세) 전망(만명) : ('20년) 3,738 → ('30년) 3,381 (9.6% ↓)



2. 국가 평생교육 정책 맥락

②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만25~79세)

2. 국가 평생교육 정책 맥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평생학습은 국민 간 격차 해소의 효과적 정책수단

한국은 소득 수준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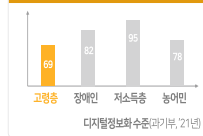
- 사회적자본 : 국민통합, 사회적 관계망, 국민 간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등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를 풀어가는 열쇠

- ▶ 더 나은 삶,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자본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



평생학습은 기술혁신 시대 국민 간 격차해소에 필수적이며, 사회적자본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디지털 혁신에 따른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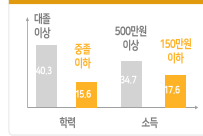


기술진보 시대의 직무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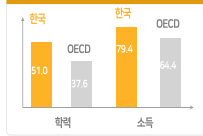


- ▶ 저학력·저소득층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대책 필요

학력별 격차



기업규모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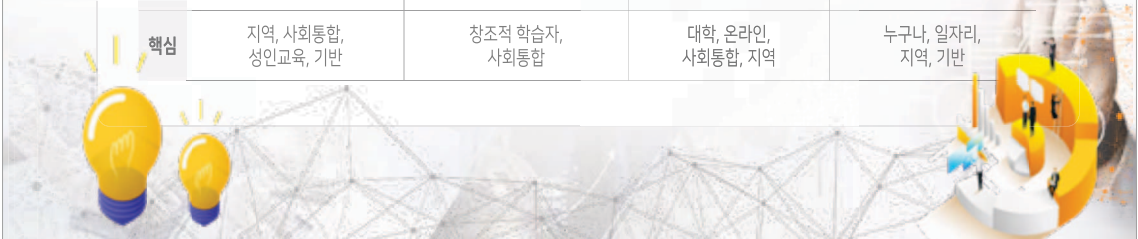
2. 국가 평생교육 정책 맥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그간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

네 번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	2차(08~12)	3차(13~17)	4차(18~22)
비전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실현
핵심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2. 국가 평생교육 정책 맥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세기의 문맹은 배우고(learn), 배운 것은 버리고(unlearn), 다시 배우기(relearn)를 못하는 것

-앨빈 토플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단선적 성장경로

생애초기 성장경로를 잘 마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 믿음

교육부의 예산 비중('22년):
유초중고(79.1%), 대학(13.9%),
평생교육(0.1%)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생애초기 집중 투자 문제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

“모든 근로자의 50%는 5년 내 재교육(re-
skilling) 필요” (세계경제포럼, '20년)

평생에 걸쳐 학습을 지속하는 교육 패러다임 필요

누구나 언제든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요구

모든 국민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학습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3.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비전

-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정책목표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



3대 키워드

지속 가능성



- 국민의 계속 성장
- 정책을 지속 고도화

기회



- 실질적인 기회 확대
- 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

연계



- 다양한 학습경험 연계
- 국가-지자체-민간 연계

3.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대 핵심 과제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환경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3.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
4.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의 연결 강화
 -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
6.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뒷받침 과제

기대 효과

거버넌스 범정부 협력 강화	데이터 데이터 기반 정책	재정 안정적 재원 마련	
경제/일자리 생산성 제고	행복감 증축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 양극화 해소	지역 활력 지역 학습공동체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방향

-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체계를 성인학습자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언제든 대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을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개방

성인 역량 향상

- ✓ 일반성인 대상 학점 제공이 가능한 재교육·향상교육 과정 운영
- ✓ 성인학습자 특화형 전담학부·학과개설 확대
- ✓ 디지털(K-MOOC) 활용, 역량 중심 단기과정

기업 수요 맞춤

- ✓ 기업 맞춤형 대학 위탁과정은 대학의 이동수업 전면 허용
- ✓ 매치업 오프라인 심화과정 신설
- ✓ 평생학습 R&D 추진

지역주민 평생학습

- ✓ 비학위과정을 편입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 ✓ 기초자자체-전문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 확대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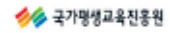
'23년~'24년
(2년 내)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 추진
- 성인 맞춤형 재교육·향상교육 추진
-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 도입

'25년~'27년
(5년 내)

-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활성화
- 지역, 기업 연계 확산
- 평생학습 상호 학점인정평생학습정 생태계 조성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1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지속적인 역량향상을 위해 대학을 통한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음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 (직능연, '22년)

■ 대학 교육환경은 학령기 중심,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있어,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움

* 대학 등 정규과정 평생교육참여율 : 0.8% (총 참여율 30.7% 중) (교육부, '21년)

▶ 성인의 여건을 고려한 비학위과정 확대, 성인 맞춤형 학위과정 개설, 성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등 필요

지금까지

- 대상·교육내용 | 학령기 학생 중심
- 교육과정 | 경직적인 2~4년 학위과정
- 학위취득 | 단선적인 학위취득 경로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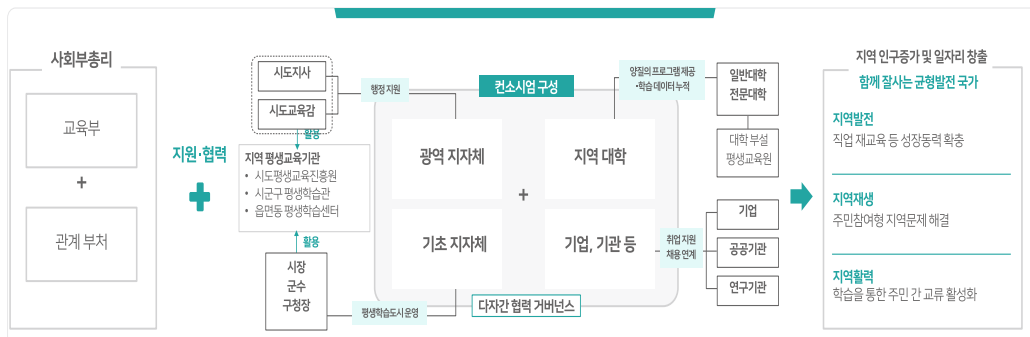
- 대상·교육내용 |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
- 교육과정 |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
- 학위취득 | 유연한 조합·누적형 학위 취득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방향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 지역기업,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23년~'24년
(2년 내)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정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추진

'25년~'27년
(5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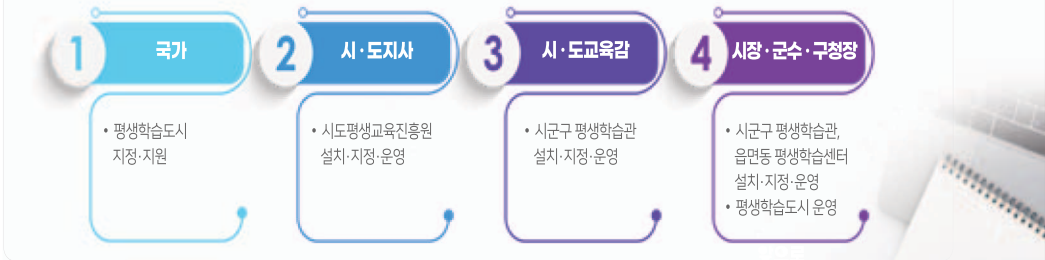
- 민간 평생교육기관 규제혁신 추진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확산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2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국가부터 시군구까지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나 **주체 간 체계적 연결성 부족**

「평생교육법」상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지역 인구소멸* 및 기술혁신 등에 따라 **양질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

* '22년 기준,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가 중심 평생학습 진흥으로 **지역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필요**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3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방향 30~50대 생애도약기 국민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패키지 형태의 평생학습 정책 추진**

30~50대 생애도약기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 확충



로드맵

'23년~'24년
(2년 내)

- 3050 생애도약기 지원근거 마련
- 전담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원 지정
- 평생학습휴가제 법령개정 추진

'25년~'27년
(5년 내)

- 각종 상담 및 학습컨설팅 제공
- 원-패스 카드 도입
- 평생학습휴직제 도입 추진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생산연령인구(만15~64세)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통계청, '21년)

총인구 (만명)

'20년 | 5,184 → '30년 | 5,120 → '40년 | 5,019

생산연령인구 (만명)

'20년 | 3,738 → '70년 | 1,737 (20년의 46.5% 수준)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 부담비 증가* 등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생산성 제고 필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20년 | 39 → '70년 | 117명

30~50대에 인구 집중
한국 사회의 '허리' 연령대

중위연령

'20년 | 43.7세 → '30년 | 49.8세 → '40년 | 54.6세

* 생산연령인구의 약 64%

인구수 및 총인구대비 비중 (22.9월 기준)

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
5,147만명	1,477만명	2,335만명	1,306만명	28만명
100%	28.7%	45.4%	25.4%	0.5%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필요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방향 |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진흥 -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 확대

지금까지	
고령층	• 평생학습 정책 부족
장애인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운영 지원 등
저소득층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1% 지원
비문해자	• 비문해자 대상 성인문해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 관련 평생교육 정책 미흡

앞으로	
	• 맞춤형 학습컨설팅, 대학 전담과정 개설, 독거노인 학습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
	• 27년까지 저소득층 5% 지원
	• 저문해자까지 성인문해교육 확대,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온라인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더빙 제공

로드맵

'23년~'24년
(2년 내)

- 장애인 평생교육 법적근거 강화
- 고령층 대학 전담과정 개설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25년~'27년
(5년 내)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5% 지원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확대
- 비문해자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 방향**
- 학교, 직장 등 삶의 여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경험 간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 경로 유연화
 - 학위·비학위과정 연계, 온-오프라인 학습 연계 등 **교육방식·과정 간의 적극적인 융합** 추진

지금까지	앞으로
국가학습 경험인정 - 재직경력, 자격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 ✓학점은행제('99년~) -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점인정 ✓대학 학습경험인정제('17년~) - 대학 밖 연구·재직경력 등 학점 인정 온라인 묶음학위과정 - K-MOOC 등에는 학위과정 없음 학점은행 - 국내거주자만 신청가능	재직경력, 자격만으로 학력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신설 • K-MOOC, 매치업, 대학,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조합한 학위과정 신설 • 해외거주자도 신청가능 • 학점원 지속 확대

로드맵

'23년~'24년
(2년 내)

- 국가 경력·학력인정제 정책연구
- 온라인강의 이수체계도 마련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확대

'25년~'27년
(5년 내)

-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 온라인강의 묶음 학위과정 도입
- 국가 경력·학력인정제 도입

4.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개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 방향**
- AI 기술을 통해, 정보탐색, 학습이력 기록·관리, 학습결과 활용까지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
 - 누적된 학습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기업의 채용지원 등 민간의 고도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로드맵

'23년~'24년
(2년 내)

- 학습이력 자동연계 기관 확대
-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역량-평생학습 정보분류체계 수립

'25년~'27년
(5년 내)

-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플랫폼 운영
- 평생학습포인트제 도입
- 기업 인재채용 플랫폼으로 활용



MEMO

.....

.....

.....

.....

.....

.....

.....

.....

.....

.....

.....

.....

.....

.....

.....

.....

.....

.....

.....

.....

.....

주제 발표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1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

구 본 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추이와 교육이 미치는 영향

구 본 우(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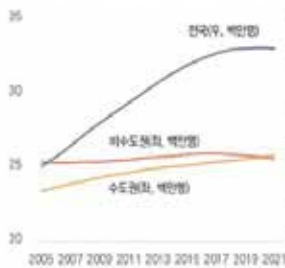
I. 창원특례시 인구 동향

창원특례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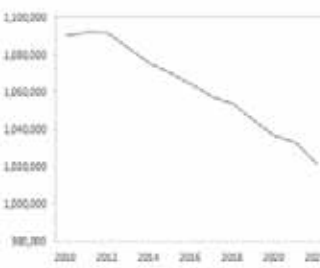
■ 2020년 전국 인구 감소, 2013년 창원 인구 감소

- 전국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비수도권 인구감소 경향에 의해 주도
- 창원특례시 인구감소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 감소보다 앞서 시작됐으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2025년 100만 하회, 2040년 87만 6천명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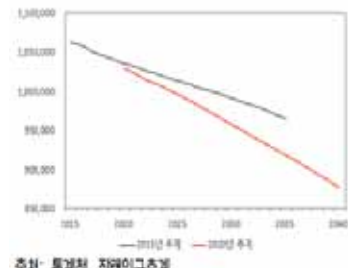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추이>



<창원특례시 인구 추이>



<추계연도별 창원특례시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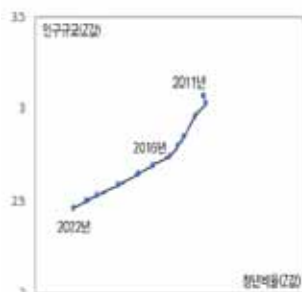
3

창원특례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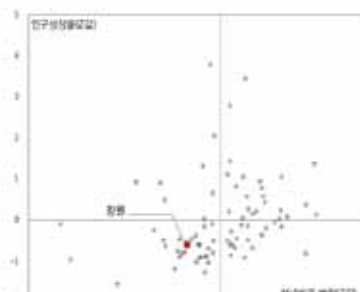
■ 창원특례시는 다른 기초단체(시부)와 비교할 때 더 빠르게 인구와 청년비율이 하락

- 청년비율이 77개 기초단체 시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청년 비율의 급격한 상대적 하락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11-21년 사이 창원 인구성장률 및 청년비율 변화는 심각한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음
- 인구소멸지수에 기초할 때, 창원특례시 2025년 인구위험소멸위험단계 진입, 2040년 인구소멸고위험단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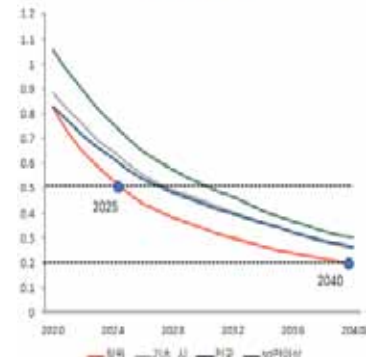
<창원특례시 인구 및 청년비율 상대 위치 추이>



<창원특례시 인구성장률 및 청년비율 변화 상대 위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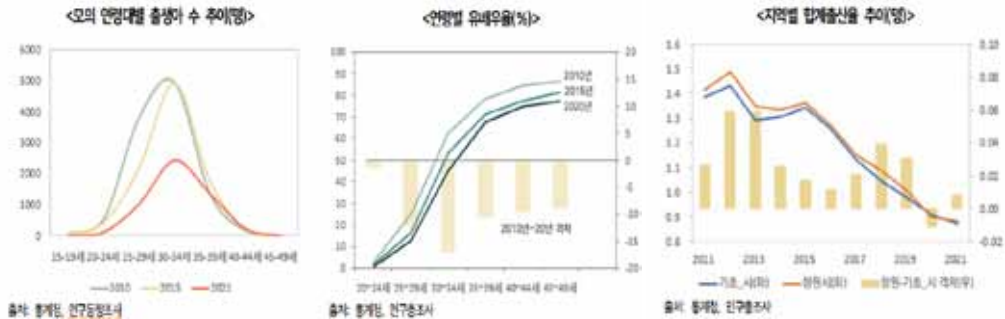


4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요인

■ 출산율 하락, 출산연령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 출생아 수가 2015-21년 사이 급격히 감소, 모의 출산 연령 고령화
- 출산연령의 고령화는 혼인연령의 고령화와 연관(2010-20년 사이 유배우율 전연령대 감소, 특히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연령대 크게 하락)
- 출산율의 하락 속도 다른 도시(기초단체 시부)에 비해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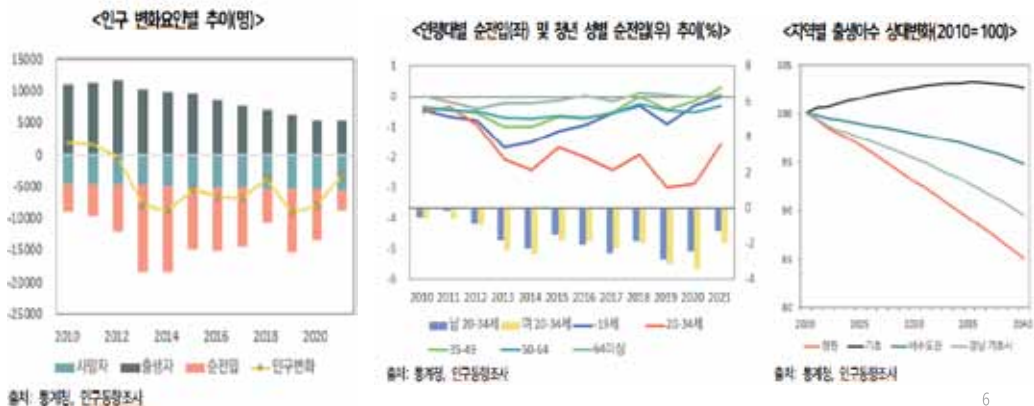


5

창원특례시 인구변화 요인

■ 청년유출이 인구감소 주도

- 하락분 보다 마이너스 순전입(순전출)이 인구 감소에 더 크게 기여
- 창원특례시는 전연령/청년 순전입비율 모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열위에 있음
- 청년의 순전출이 전체 창원 순전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2013년경 순전출의 급격한 증가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특히 청년 여성 순전출이 높음)
- 청년 인구의 유출은 결혼/출산 인구 감소 경유, 합계출산율 하락에 이중충격 부과(빠른 출생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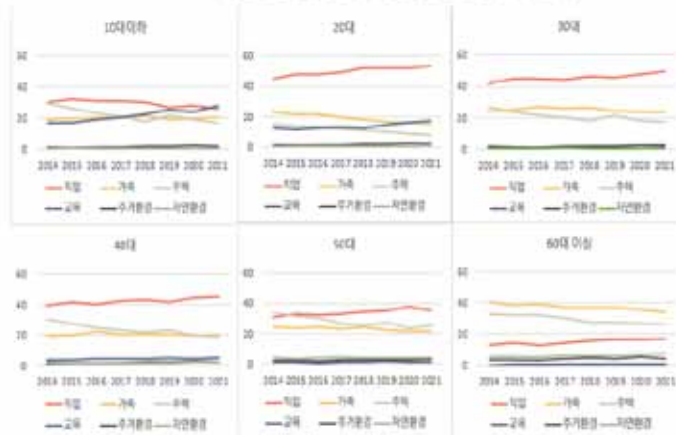
6

II. 인구유출 요인과 창원시 정주환경

창원특례시 전출 사유의 특징

- 1) 10-50대 주요 사유는 일자리
- 2) 10-20대 교육 사유 지속 증가 & 비증확대

<인구대별 순전입(좌) 및 정년 생활 순전입(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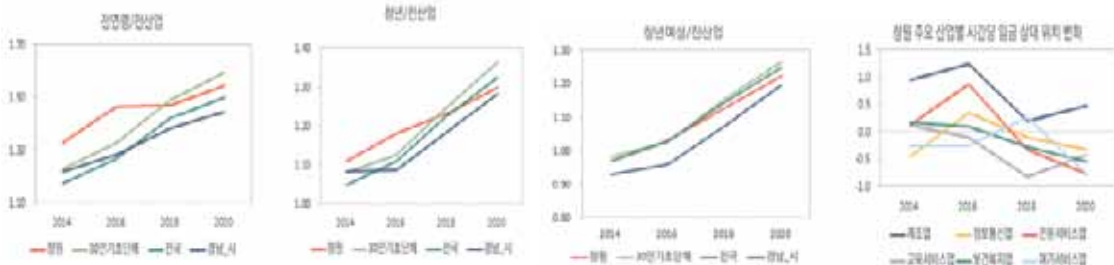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7

분야별 정주환경

• 청년/일자리 (임금)

- 상대적 낮은 임금과 적성/선호에 맞는 직업 탐색 기회의 제한이 중점 개선 과제
- 핵심대상 청년, 청년여성들은 임금, 적성/선호에 더 높은 중요도, 더 낮은 만족도 부여
- 창원 사업체 시간당 임금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특히 청년 집단 임금에서 두드러짐)
- 제조업은 평균이상 유지, 주요 서비스업 빠른 하락 ➡ 임금문제-적성문제 결합



<시간당 임금 상대위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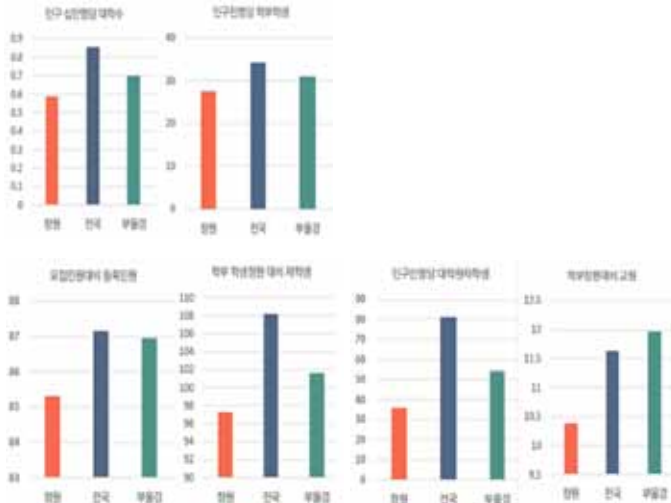
• 20개 30만 가오도시 내 창원 4 산업 시간당 임금 1위

8

분야별 정주환경

■ 고등/평생교육(고등교육)

- 창원 대학은 양적, 질적으로 전국 및 부울경 대학 평균수준에 못미침
- 특히 학교에 대한 신뢰, 대학 연구 교육 인프라를 보여주는 질적 지표들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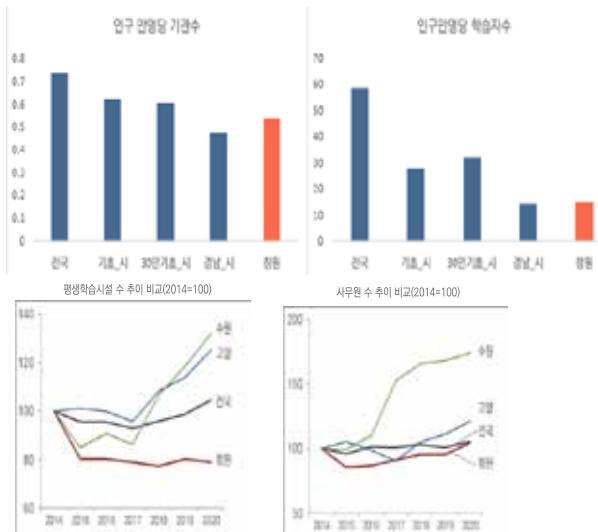


11

분야별 정주환경

■ 고등/평생교육 (평생교육)

- 평생교육 분야 인구 대비 평생교육기관 수, 인구 대비 평생학습자수 지표에서 창원은 경남 시부와는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하지만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창원도 인구도 많은 편이고 그만큼 젊은 층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배우거나 소모임을 참여하고 싶거나 하면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배울 카드 같이 나타나서 지원하는 것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본래도 너무 한정되어 있고 교육기관도 많지 않아요. 컴퓨터 관련된 것을 배우려면 영상 프로그램을 배우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냥 카드 같이 기초적인 취업 관련 자격증 교육 정도만 접근성이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곳도 보면 기초적인 교육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용만한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원 장년 G)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참여는 않으면 너무 회사에 바빠서 할 것 같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운동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그런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퇴근하면 단체 친구 만나서 기 정도 외에는 별다른 것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교육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은 어학모임, 배울 수 있는 것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창원은 권데이 클래스, 소모임 같은 것을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창원 유출연구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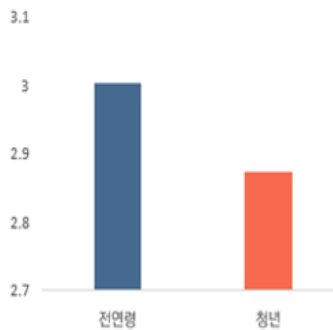
12

분야별 정주환경

■ 문화/가치

- 창원시민은 창원이 청년을 존중하는 도시라고 보지 않고 있음
(전연령 3.00점, 청년 2.87점)
- 이주의향자의 약 20%는 더 좋은 여가/문화 향유를 위해 이주 생각
- 보수적/위계적 문화, 폐쇄적 공동체 문화 등이 청년의 거주지 선택과 인생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창원은 청년을 존중하는 도시?(5점)〉



"유년 문화가 잘 안한 곳이 없고 그나마 있는 문화가도 전적으로 입지 않고 문신되어 있
기 때문인지 창원에서선 좀 독특하게 행동을 하면 눈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약간 노출이
있다가나 명색이 과하면 지나가면서 쳐다보시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런 문화
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입고 술가게면 아예 무산이나 사물에 가곤 합니다
다. 주변친구들끼리 놀래도 창원에서 놀 때와 무산에 놀러갈 때는 옷차림 자체가 달라져
요." (창원청년 A)

"포지 문화가 다른 대도시와 비해 훨씬 견직하고 근대적 문화가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근무하는 은행은 여성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다른지역 본부와 경
남을 비교해보면 경남이 유독 심한편이예요. 경남 본부에서 일하신 분들 대부분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말쑥하셔요. 조직문화도 그런대로. 비공인대. 본부장님과 식사가 많았다 하
면 울산. 부산 등은 본부장님 오시니까 회식 빠지지 않고 가져 정도예요. 그리고 회식 가서
술한잔 드리는 정도죠. 그런데 경남 지역은 본부장님과 식사를 한다면 그걸 위해서 현수막
걸고 대본 짜고 노래 불러드리라고 노래부를 사람 뽑는 거죠." (창원 유출연구 D)

"창원에서는 어른들이 사람들 평가를 때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 도시이
고 한다면 건너편 세로 아는 사람들이라 보니 학교가 어딘지 어디서 자랐는지 하는 안락에
트윅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기 오송지역은 외부에서 돌아와 직장들 다니는 사람
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사람 오래 봐있지 하는 경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평가
한다거나 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창원에서선 평가 시스템이 좀 공평하고 가치관을 공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확실히 그렇게 않아요. 서울 같은 곳에 가면 훨
씬 덜 한 것 같고요. 그런 민간단체가 청년들한테는 어필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원처럼 연고가 중요한 대서는 사람이 잘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 때
문에 더 부담스럽고 일거해할 수밖에 없고 또 일찍이 행동하도록 무의식에 주입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가서 죽어있는 법이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한 직장 갖춰진 가족이 아니라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서 한
축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실패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오르고 될 평가받으니까 일단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유출연구 D)

13

III. 창원특례시 인구감소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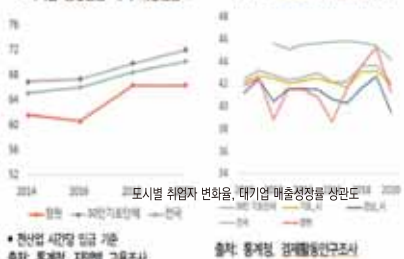
성장거점 도시와 (청년) 인구 유출

■ 인구 감소는 창원특례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결과

- 창원특례시는 그간 제조업 중심 성장과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4인가족 생활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재생산되어 왔으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거점형 도시 발전구조로부터의 전환은 지연되어 왔음
- 제조업 중심성으로 인한 직업 기회 제한 및 산업적 다양성 제약, 4인가족 생활임금체계에 근거한 성별 분업, 문화적 균일성



〈지역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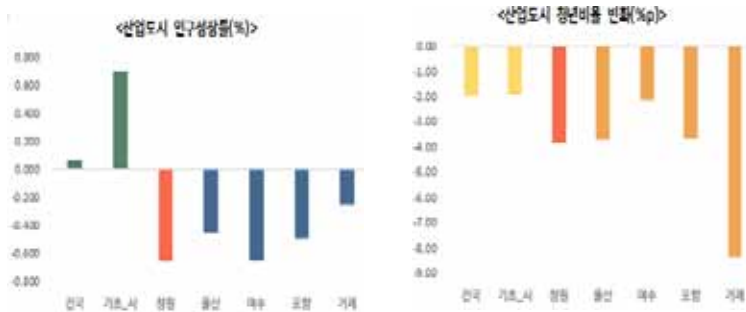


14

성장거점 도시와 (청년) 인구 유출

■ 전통적 산업도시, 창원과 유사한 인구변화 패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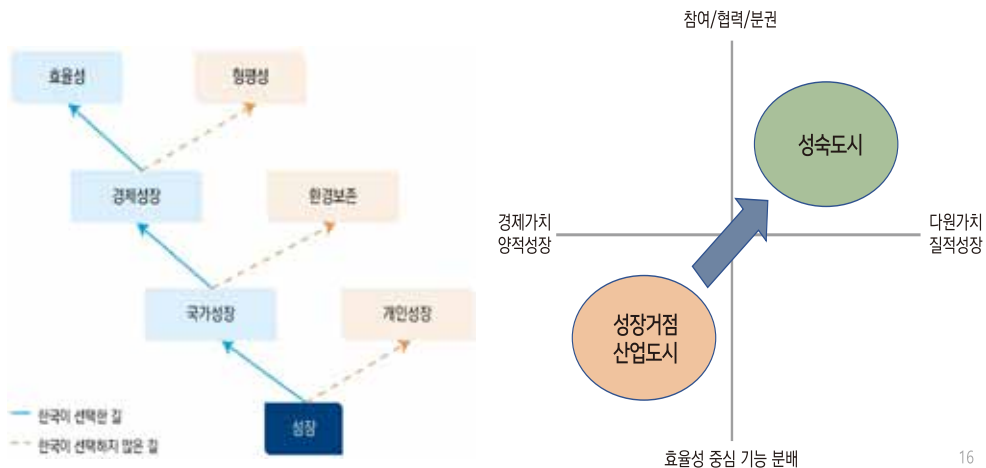
- 울산, 여수, 포항, 거제 등 전통적 산업도시들은 창원과 인구/청년 비율에서 유사한 악화 패턴 나타남
- 그 중에서도 창원은 좀 더 심각한 인구성장률 감소와 청년비율 감소 현상 발생



15

성장거점 산업도시에서 성숙도시로

- 경제적 가치 창출, 효율성 중심의 성장거점 도시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성숙도시로 전환되어 가야 함
- 도시구조 전환이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및 출산을 하락을 억제하는 근본적 방향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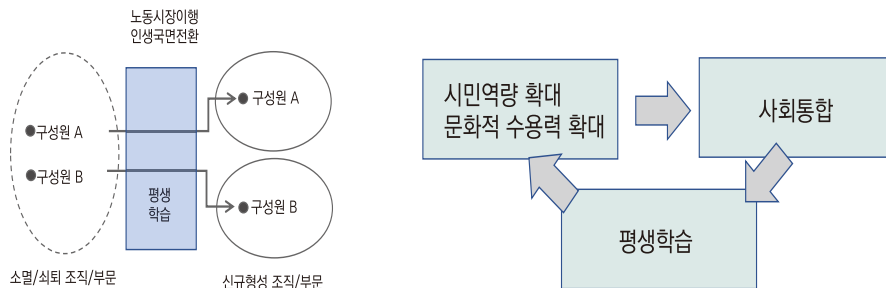


16

IV. 도시구조 전환에 있어 평생학습의 역할

평생학습체제의 사회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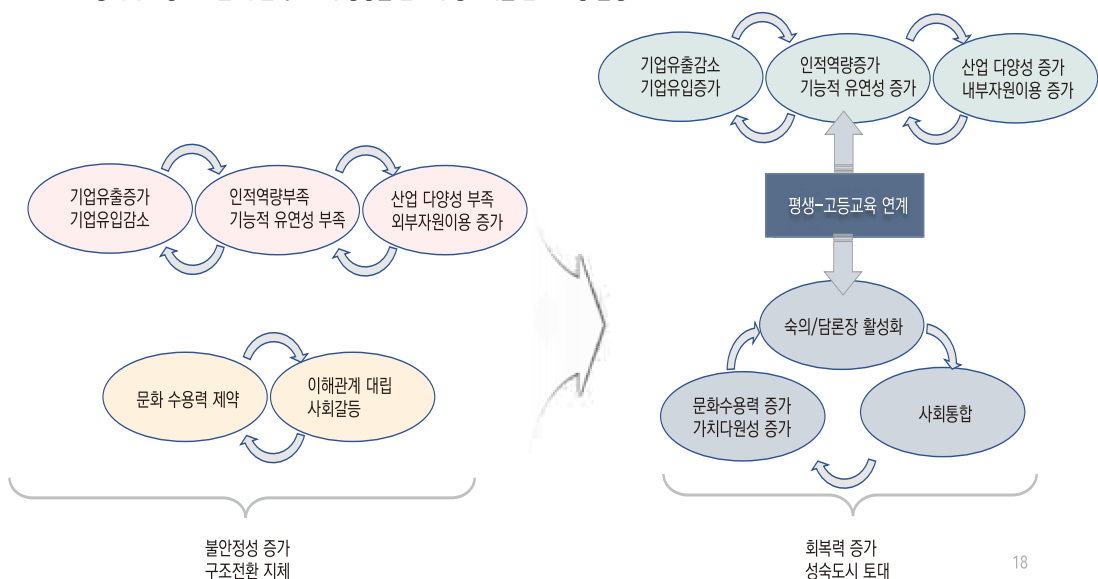
- 평생학습체제는 사회구성원이 산업변화, 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고용형태로의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적역량 형성의 토대
- 시민역량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 확장의 토대



17

도시구조 전환에 있어 평생학습의 역할

- 울산, 여수, 포항, 거제 등 전통적 산업도시들은 창원과 인구/청년 비율에서 유사한 악화 패턴 나타남
- 그 중에서도 창원은 좀 더 심각한 인구성장률 감소와 청년비율 감소 현상 발생



18

MEMO

.....

.....

.....

.....

.....

.....

.....

.....

.....

.....

.....

.....

.....

.....

.....

.....

.....

.....

.....

.....

.....

.....

주제 발표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2

평생학습도시 창원, 재도약을 위한 과제

이 희 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평생학습도시 창원, 재도약을 위한 과제

이 희 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Prologue

‘A major leap forward, 창원’ 이제는 재도약보다는 대도약을 할 때이다. 모르고 있는 것이 위기이며, 알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닌 변화의 기회이다. 그런 면에서 창원은 오늘의 자리를 빌어 이미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ATD23(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NEW CHALLENGE’이다.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평생교육이 답이고 위기를 변화로 바꾸면 기회는 따라온다.

‘New Challenge’를 위한 3C를 제안해본다.

첫째, ‘Crisis’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위기를 읽는다. 창원시는 지방의 인구 소멸, 대학 소멸,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을 위한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선제적 변화를 통해 혁신의 파도를 타고 도약해야 한다. 둘째, ‘Change’는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창출한다. 평생학습도시 2.0 및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로의 질적 도약을 통해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hance’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전략산업인 방산, 원전, 수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리더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위기(Crisis)를 읽고,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Change)에 적응하고 변화를 창출하여 기회(Chance)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3C Leadership이다. 위기를 변화로 바꾸면 기회는 자연히 따라온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창원시가 대도약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위기를 뛰어넘을 springboard이고, 기회를 연결해 줄 bridge이다. 오늘 이 자리가 평생학습이 springboard이자 bridge로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유행 0: 유행을 따라하기보다는 창조하는 창원특례시, 뒷북치기(Reactive)보다는 앞북치면서(Proactive)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도에 나아간다. ‘창원시 평생학습체제 재편 추진 계획’에서 선제적 노력을 읽는다.

- | |
|---|
| <p>① 시대적 요구와 중앙정부의 의지에 부응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p> <p>*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등</p> <p>②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p> <p>* 인력 수요조사, 민·관·산·학 컨소시엄 구축, 조직체계 정비</p> <p>③ 기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p> <p>* 성인직업대학, 디지털 역량향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프로그램 개편, 다문화</p> |
|---|

시민 교육

- ④ 수요자 관점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마련해 **정책 접근성과 수용성 강화**
 - *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홍보 강화
- ⑤ 사업의 광범위성을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기 사업을 선별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확대·강화**
 - * 전략산업(방산, 원전, 수소)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개설, 롤모델과 로드맵 마련

II. Ten Fashions

유행1: 프로그램 장사를 하지 말고 국정철학 장사를 하라. 정치를 알면 사업이 보인다. 평생학습은 4P 장사다. 국정철학(Philosophy)-정치(Politics)-정책(Policy)-프로그램(Program) 순이다. 철학은 정치를 낳고, 정책은 정치의 결과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이다. 정치의 풍향계를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점인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의 파생상품인 정치와 정책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나온다. 특례시답게 중앙정부와 거래하라. 국정철학을 알아야 통 큰 거래를 하고, 헛다리를 짚지 않는다. 빅딜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하는 거다. 중국 속담에 “하늘과 땅엔 대들어도 관리에게는 대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제시한 제목은 ‘평생학습도시 창원, 제도약을 위한 과제’이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제도약’이 나온다. 창원특례시의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인식에 감탄했다. 창원특례시는 작은 프로그램 장사를 하지 않고 통 큰 국정철학 장사를 하는 특별한 도시다.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부터 열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년 7월)는 ‘국민입장’에서 국정 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 (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하였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중시한다. 그러니 전략보다는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과제라는 말보다는 약속 1, 2, 3 시리즈로 나가는 것도 차별적 맞춤 전략이 된다. 이미 ‘창원시 평생학습체제 재편 추진 계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숙독한 지문이 묻어난다. 창원특례시답다.

유행2: 위기를 말하지 말고 기회를 제시하라. 이번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주제는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이다. 주제 선점의 탁월성이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실업 위기’ 등 위기로 점철되어 있다. ‘인구 소멸, 대학 소멸, 지역 소멸’이란 소멸이란 말은 위기감을 더해준다. 이제는 위기라는 말을 들어도 무감각하다. 보통사람은 ‘불이야’라고 외치고, 리더는 ‘그 불을 끈다.’ 리더는 남보다 한발 앞서 위기(Crisis)를 읽고,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Change)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창출하여 기회(Chance)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3C Leadership이다. 3C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C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연결하는 ‘변화’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승리의 전략으로 기정(奇正)을 강조한다. 원칙과 변칙의 적절한 구사를 말한다. 원칙인 정(正)으로 방어하고 변칙인 기(奇)로 공격한다. 변화는 변칙과도 통한다. 위기를 변화로 바꾸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변화는 학습을 통해 일어난다. 학습은 변화에 우선한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습이다. 리더는 학습으로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기반의 학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교육이 왕이고, 리더다. 리더는 평생학습을 한다. 오늘이 그런 자리다.

유행3: 정의가 아니라 도약으로 끝내라. 정부가 바뀌면 국정 이념과 용어도 바뀐다. 새 정부의 용어가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한몫 잡아 번창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나도 외운다. 그 시대의 표어는 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정의’에서 ‘도약’으로의 변화다. 정의와 포용보다는 도약과 자유가 눈에 많이 띈다. 정부의 비전과 사업 제목은 대부분 ‘고도화’, ‘도약’으로 끝난다. 도약과 고도화를 강조한다. 어느새, 포용, 정의, 민주라는 말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노출 빈도가 낮아졌다. 교육에 있어서는 ‘담대한’이란 말도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교당 5년간 1,000억 지원을 하게 될, 대학의 사활이 걸린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의 목적에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화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 대학의 대도약(Quantum Leap)을 지원”으로 나타나 있다. 역시 ‘대도약’으로 맺고 있다. 정권마다 즐겨 쓰는 용어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낱말 사전, 아이디어의 ‘궁전(宮殿)’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다. 중국 격언을 빌리면 ‘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지역에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上有政策 下有對策). 이를 선제적으로 잘하는 곳이 바로 창원특례시다. 정부에는 정책이, 창원특례시에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재도약보다는 대도약을 할 때이다. 창원특례시는 대도약을 할만한 역량과 자격이 충분하다.

유행4: ‘정치적 적폐 청산’이 아니라 ‘사회적 난제 해결’을 선도하라. 지난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던 적폐 청산은 자리를 감추고 사회적 난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사회 문제의 하나로 ‘wicked problem’이란 용어가 있다. 사악한 문제로 번역하지 않고 고질병 같은 고약한 ‘사회적 난제’로 번역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지방대 소멸, 지역 소멸, 기후 위기, 사회 갈등 등이 사회적 난

제에 해당한다. 지역마다 난제를 안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 난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유난히 강조한다. 지역 의제의 하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 난제 해결을 함께 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 과제 유형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사이 ‘사회적 난제, 지역 현안 해결’은 하나의 과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창원특례시의 난제 중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창원을 떠나는 청년 유출의 문제다. 100만 인구 마지노선을 사수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그렇다면 청년 유출이 창원의 난제이자 현안이다. 이 고약한 난제(Wicked Problem)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천재 하나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학습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평생학습 포럼은 난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다. 난제 해결은 천재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난제의 매듭을 풀거나 자르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한다. 그 장이 창원특례시 평생학습포럼이다.

유행5: 단독이 아니라 지·산·학 컨소시엄으로 묶어라. 대체는 컨소시엄이다. LiFE 사업의 제3유형은 컨소시엄형이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중에서도 컨소시엄형이 주목받고 있다. RIS, RISE, LiFE, HiVE, 글로컬 대학 등에서 한결같이 지·산·학 컨소시엄, 다자간 협약을 강조한다. 대학, 지자체, 기업, 평생교육기관은 개별적, 분절적으로 움직여서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를 묶을 수 있는 때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사업에 적용되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투자, 위험분산, 상호보완, 공정한 이익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컨소시엄은 시장친화적인 기업 개념으로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경험이 적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에 적용하면, 컨소시엄은 시·도청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초지자체, 대학, 기업,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을 ‘지역의 평생학습 집중진흥’이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형태로 연결하고 묶을 수 있는 지자체의 허리띠에 해당한다. 이의 발의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밖에 없다. 컨소시엄의 구성 방법에 있어서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주사업자가 되고, 기초지자체, 대학, 기업,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들은 보조사업자가 된다. 다만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대학 주도형, 기업 주도형, 기초지자체 주도형, 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여러 시·군·구를 합쳐 놓은 거대 폴리스 형태나 창원시의 경우는 특례시 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개별적/분산적/분절적 접근에서 집단적/집중적/연결적 접근으로 옮겨간다. 이의 전형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이고, 이의 전략이 ‘컨소시엄’이다. 윤석열 정부의 허리띠는 지·산·학을 하나로 묶는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을 세 번 외쳐라. 그러면 컨소시엄이 보일 것이다.

유행6: 평생학습 대전환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라.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으로 발표된 「평생학습 진흥 방안」의 하이라이트는 ‘평생학습 대전환’이다. 즉 ‘학위과정 중심의 대

학 평생학습'에서 '대학이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중앙정부 시각에서의 지자체 평가·지원'으로부터 '지자체 중심, 지역성장, 활력제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평생학습은 시혜적 복지'에서 '평생학습은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운영'에서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로,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에서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지원'으로,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정책추진'에서 '성인정책의 린치핀, 범정부 협력·연계'로, '평생학습은 학교·대학 밖 교육, 6대 영역 구분'에서 '평생학습의 개념 재정립, 역량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활동'으로의 전환이다. 국가 중심에서 광역 중심으로, 보완적 평생교육에서 보편적 평생교육으로, 분리 운영에서 지·산·학 연계로의 전환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조직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밀려오는 파도에 맞서는 자다. 파도에 맞아 익사하여 해변에 시신으로 남는다. 다른 하나는 기회로 알고 파도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간다. 인류의 역사는 농업의 제1파도, 공업의 제2파도, 정보의 제3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진화의 역사이다. 제4의 파도는 전환의 파도이다. 이러한 전환 시대의 논리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파도에 올라타서 평생학습으로 선도하며 나아가는 곳이 창원특례시이다. 가히 창원특례시는 제4의 파도를 지휘하는 선제 도시(Proactive)이다.

유행7: 평생학습도시를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로 재편하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국민학습권과 전 국민 평생학습 장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과 이 법에 의거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단어는 평생교육진흥이며, 이의 핵심 사업이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이다.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과 이를 실현하는 계획인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공통으로 명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학습도시 2.0 및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로 질적 도약하려면 평생학습도시는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평생학습관 중심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단년도·단기지원에서 다년도·장기지원으로, 평생교육의 수직적·수평적 분절에서 통합으로, 분산투자에서 집중투자로, 기초지자체 단독 사업에서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간 컨소시엄 사업으로, 단선적 교육경로에서 순환적 교육시스템 재구조화로, 교양취미 위주에서 직업기술교육으로, 교환가치 모델에서 사용가치 모델로, 대학생 양성교육에서 성인 재교육으로, 숫자 위주에서 질적 고도화로, 두뇌 유출 및 획득(Brain Drain/Gain)에서 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평준화에서 특성화로, 단독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소액 분산투자에서 거액 집중투자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일회성 형식적 컨설팅에서 상시 맨투맨 멘토링으로, 선정에서 단계

별 육성으로, 매스마케팅에서 니치마케팅으로, 군등 배분에서 선택 집중으로, 양적 확장에서 성과관리를 통한 내실화 우수사례 육성으로,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 지역 내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탁상행정에서 타운 워칭(Town Watching)으로¹⁾, 중앙정부 주도의 선정 지원에서 광역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혁신으로, 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적 재정지원을 통한 광역별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생학습 집중지구는 평생학습도시의 전략적 전환을 통한 질적 도약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창원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창원시 평생학습체계 재편 추진 계획」을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의 모습을 앞서서 창원특례시에서 볼 것으로 모두가 기대한다. 다만 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 더 크게 그려야 한다. 경남의 중심도시답게 모두가 큰 그림(Big Picture)을 앞서 그리는 창원특례시의 능력에 탄복하면서 창원시를 따른다.

유행8: RISE와 「글로벌대학 30」 추진에 주목하라. 진부한 표현이지만 신의 한 수라는 것은 RISE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이의 전신인 RIS에 ‘& Education’을 붙여서 이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도약’을 뜻하는 ‘RISE’가 탄생했다. ‘RIS to RISE’다. RISE는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련 대부분 사업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Master Concept, Umbrella Concept에 가깝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말한다. LiFE 사업도 RISE 테두리 내에서 추진된다. 한편, 글로벌대학이란 ‘답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 고등교육 지원 사업이었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인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이 이른바 세방화(Global + Local)인 글로벌 대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창업은 지역에서 성공은 세계에서(Start-up locally, Succeed globally)’라는 창업 명문 Bapson College의 슬로건이 생각난다. 로컬과 글로벌은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 평생학습도시를 포함한 평생학습 사업도 시작은 창원에서 하지만 성공은 세계에서 해야 한다. 궁극적 지향점과 무대는 세계다. 글로벌대학 30의 추진으로 기초 과학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전, 수소, 방산이라는 지역 산업과의 결합으로 3대 미래 먹거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 사이에 평생교육이라는 Bridge를 건설함으로써 ‘Building the Bridge, 창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잘 만든 정부 문서인 「RISE」와 「글로벌대학 30」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큰 학습 효과가 될 것이다.

1) Town Watching이란 거리문화 접근 방법을 통해 소비 생활 문화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알 수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시각이나 정서, 감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행9: SDG와 창원 습지, 람사르 총회 개최를 연결하여 생태도시로 특성화하라. KTX를 타고 창원에 다가가다 보면 넓은 습지가 맞닿는다. 창원 하면 주남저수지, 습지, 람사르 총회가 떠오른다. 유엔의 발전 패러다임도 제1기 DD(Development Decade), 제2기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제3기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발전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시대다. 분야에 관계없이 SDG 시대다. 유네스코의 Education 2030은 SDG4의 표현에 다름 아니고, GNLC도 SDG4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ATD ICE 2023에서 보듯이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생태계를 표방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천혜의 생태도시 요건을 갖추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 이를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부서 목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창원특례시 비전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 창원시 중장기발전계획 비전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원” 대신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삼고 싶다. 좀 더 이야기하면, ‘자랑할 만한 교육 기반 마련’ 보다는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이 더 낫다. 주어진 지리적 특성인 습지와 생태계를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 환경수도 창원, 습지 보전, 주남 저수지와 람사르 총회 개최 도시의 강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SDG4가 반영된 계획, 생태계가 유행인 세상을 반영하는 노력, 2008년 10월 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자산이다. SDG, 창원 습지, 주남 저수지, 람사르 총회 개최를 연결하여 생태도시로 특성화하면 세계적인 자산이 된다. 이게 지역에서 시작하여 세계에서 성공하는 비전이다. 평생학습에서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 평생학습에 기적은 없다. 축적의 결과다. 평생학습과 지속가능은 DNA를 공유한다.

유행10: 유네스코의 키워드를 유행어로 삼으라.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평생교육의 기념비로 통할만 한 주요 보고서와 행사가 있었다. 2021년 11월에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로 일컫는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 발표되었다. 2022년 6월에는 모로코 말라카시에서 제7차 성인교육회의가 열렸다. 3대 유행어는 재상상, 신 사회계약, 전환이다. 유네스코의 “포르 보고서”(1972), “들로르 보고서”(1996)에 이은 세 번째 미래 교육 보고서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유행어를 정리한다.

첫째, ‘REIMAGINING’에서 평생학습 상상 자체를 다시 하라를 말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 평생학습 재편은 발상의 대전환으로부터 출발한다. Reimagine은 Reinvent와 동의어이다. 포장이 아니라 알맹이를 바꿔야 한다. 망상이 아니라 재발

명 차원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한다. 디즈니랜드 창립자의 미션을 인용하면, ‘창원에서 상상력이 남아 있는 한 창원특례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들의 미래(OUR FUTURES)**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다양성은 유네스코와 미래를 상징하는 DNA와 같은 존재이다. 유행어인 DEI가 말하듯이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갖추어야 그 도시는 발전한다. 다양성이 도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면 포용성은 충분조건이다. 우리들의 미래의 은유로는 ‘용광로’ 모델보다는 ‘모자이크’ 모델이 더 적합하다.

셋째, 미래는 우리가 함께(TOGETHER)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에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서 보듯이 함께(Together)가 들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Together도 함께로 번역하는 것이 정치적 감각이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정치 색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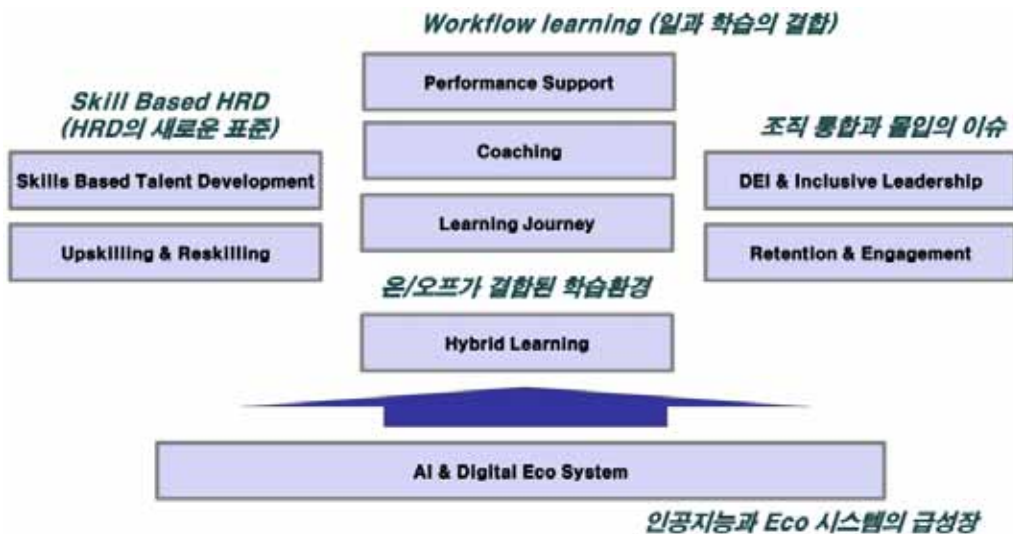
끝으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누가 봐도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신 사회계약’이다. 교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일원들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사회계약이다. 보고서에서 한 문장을 꼽으라면 다음 문장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가던 길을 바꿀 것인가 하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We face an existential choice: continue on an unsustainable path or radically change course, 원문 p. 7).” 이 보고서 서문(Introduction)의 첫 문장이니 이 보고서 전체의 실질적 첫 문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늘 포럼이 지금까지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길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길을 택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기를 바란다.

III. Epilogue

시작을 ATD ICE 2023으로 시작했으니 ATD ICE 2023으로 끝내겠다. ATD 2023은 ATD가 주최하는 연례 국제회의로 전 세계 80개국의 10,000여명의 HR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HR 최대의 지식축제 겸 엑스포다. 2023년도 80회 행사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은 개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석한 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관심과 수준을 알 수 있다. 기업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준다. 창원특례시에서도 대학보다는 기업에서 배워야 한다. 다양한 디브리핑 자료가 있지만 평생학습기업인 휴넷 자료를 참고한다.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휴넷 ATD23 디브리핑 자료를 시청하라고 권하면서 키워드를 공유한다.

ATD 5대 트렌드와 9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휴넷의 ATD ICE 2023 디브리핑을 다시 디브리핑 해본다. 2021, 2022, 2023 행사를 통해 Workflow Learning은 지속적인 트렌드(관련 키워드 : 러닝저니, 퍼포먼스 서포트, 러닝 트랜스퍼 등)이며, 기술 기반, AI, 에코 시스템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키워드이며, 문화, 리더십, 몰입 등은

트렌드를 타지 않고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첫 번째 트렌드는 HRD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스킬 기반 인재개발과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일과 학습의 결합을 뜻하는 Workflow learning으로서 Performance Support, Coaching, Learning Journey가 이를 구성한다. 세 번째 트렌드는 조직 통합과 몰입의 이슈로서 DEI & Inclusive Leadership(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 포용적 리더십)과 유지와 몰입(Retention & Engagement)이 이를 구성한다. 네 번째 트렌드는 온/오프가 결합된 학습환경으로서 Hybrid Learning이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인공지능과 Eco 시스템의 급성장이다.



[그림 1] 핵심 키워드 9의 도출

* 출처 : 휴넷 ATD23 디브리핑

<Keyword 1. HRD의 새로운 표준, Skills Based Talent Development>

최근에 주목되는 키워드는 단연 Skill과 관련된 단어인 업스킬링/리스킬링 그리고 스킬 기반 인재개발(Skills based TD)이다. 역량 중심에서 스킬즈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역량에서 스킬로의 변화를 촉진시킨 세 가지 요인으로서는 첫째, 변화의 속도로 인하여 업무변화와 기술변화 속도에 역량 모델의 한계가 노정되었고, 둘째, 공급자 중심의 역량 설계로 인한 한계, 셋째, 역량 모델은 변화가 적은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가능하지만 IT, 기술산업, 서비스 산업에서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스킬은 역량을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스킬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Skill 단위의 HR이 필요하다. 지식과 산업의 변화 속도와 유연해진 Workforce 환경에 따라 Job 단위 또는 Role 단위 중심의 HR 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 스킬은 역량과 달리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광범위한

정보 기반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스킬은 새로운 교육 요구를 창출하며 인접영역으로의 확장에 뿌리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함으로써 역량 모델의 한계인 제조업 중심, 속도변화의 문제, 공급자 중심의 모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스킬즈 데이터베이스는 학습과 경력 측면, 인텔리전스 측면, 조직의 진화와 성숙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HRD는 비즈니스 목표와 학습을 서로 연결해야 하며, 업스킬링과 Retention(유지)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 HRD 프로그램은 경력과 연관되어야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스킬 단위를 관리할 때 기간, 가치, 지속성의 세 가지 요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량에서 스킬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역량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Keyword 2. 변화의 시대 성장의 키워드, Upskilling & Reskilling〉

업무 자동화에 따른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강조, 디지털 스킬의 강조, 인간만의 역량인 소프트 스킬 강조, 창의와 혁신 기반 역량/스킬(회복탄력성 & 심리적 안정감)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 반갑다.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Upskilling은 기존 스킬셋에서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기술(Technology), 새로운 상품, 디지털화와 연관이 높으며, 일하는 새로운 방식에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 반면에 Reskilling은 기존 스킬셋과 다른 스킬을 의미한다. 즉 인접 스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스킬을 의미할 때도 있다. 즉 미래 직업을 정의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동과 연관 있으며, 인재 인프라의 새로운 디자인을 의미한다.

〈Keyword 3. 일과 학습의 결합을 위한 Performance Support〉

HRD는 트레이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동안 학습(Workflow Learning)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학습을 워크플로우러닝과 연결시키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성과지원이 필요하다. 워크플로우러닝이란 일 하는 동안 접근이 가능한 학습과 성과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세는 Workflow Learning이다. 문제는 일터에서 Workflow Learning을 가능케 하는 실행 전략이다.

〈Keyword 4. 학습을 이벤트에서 여정으로, Learning Journey〉

“학습은 이벤트가 아닌 프로세스다(Learning is not an Event. It's a Process)”가 마음에 와닿는다. 학습은 일회성 푸닥거리 행사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으로서의 여행에 비유된다. 부연하면 이러닝 등 정형학습을 실행하는 것은 학습을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사도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습 망각곡선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역량/지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Follow-up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행

이 된다. 반면에 과정으로서의 학습은 일회성 행사와 대조된다. 학습은 이벤트가 아니다. 요즘 나를 포함하여 교육자들은 이벤트 기획사 직원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습이 과정이라는 말은 학습과 일을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해 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Learning Journey 원리에 입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이다.

〈Keyword 5. 티칭에서 코칭으로, HRD의 변화 Coaching〉

코칭이 부활하고 있다. 나도 코치가 되어야겠다. 티칭에서 코칭으로의 변화는 공포의 DDT 모델에서 TED의 3C 모델로의 변화로 설명되고 있으니 적용가치가 높다. 부연하면 DDT는 소시적 이 잡는 약으로 머리와 겨울철 속옷에 뿌린 하얀 살충제를 떠올리게 한다. DDT는 Dreaded Drama Triangle의 약어이다. DDT 삼각형은 Victim(희생자), Persecutor(박해자), Rescuer(구조자)로 구성된다. 학습자를 희생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유발된다. 이에 반해 TED는 ‘The Empowered Dynamic’의 약어로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명성을 빌린 개념으로 보인다. TED의 3C 삼각형 모델은 Creator(창조자), Challenger(도전장려자), Coach로 구성된다. 학습자를 창조자로 보고 도전을 장려하고 코칭을 통해 선순환의 성장과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코치는 구조자에서 코치로 역할을 바꾼다. 코칭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코칭뿐만 아니라 코칭수용성 또한 중요하다. 리더십과 연결된다. TED 3C 모델을 주목하면 사업이 보인다.

〈Keyword 6.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학습효과 및 성과 극대화, Hybrid Learning Approach〉

협회의 Hybrid Learning은 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자들을 함께 가르치는 동시적 학습이다(hybrid learning is synchronous learning that teaches both in-person and online learners simultaneously. 출처: Viewsonic). 반면에 광의의 Hybrid Learning은 오프라인 학습 경험이 온라인 학습경험과 결합되거나(실시간과 비실시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온라인 학습경험으로 대체되는 것(education in which the face-to-face classroom experience is combined with or replaced by an online experience that includes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interactions, 출처: Dictionaty.com)을 뜻한다.

〈Keyword 7.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학습효과 및 성과 극대화, AI & Digital Eco System〉

다시 스킬을 강조한다. 스킬은 HRD 및 HR 전반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표준으로 역할을 한다. 스킬은 모든 것들을 꿰는 실(Thread)이다. 기존의 직무기술서와 과정 카탈로그의 접근 방식은 빠른 변화 속도에 적용이 어려우며,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

하다.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들은 통합적인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Eco System적인 접근은 학습자들에게 원스톱으로 통합적인 학습과 경력관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통합 학습 제공과 관리는 Eco System을 통해 구현된다. 급부상하는 신산업이다.

<Keyword 8. 통합적 조직문화의 구축, DEI & Inclusive Leadership>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DEI는 조직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성에서 생각의 다양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만으로 조직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포용성(Inclusion)으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통합(포용)적 리더십은 다양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이며 21세기 핵심적 리더 역량이다. 하이브리드 워크와 리모트 워크는 일반화되고 있다. 통합적 리더십은 이런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리더십에서 공감은 디지털과 변화 속도로 대변되는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정계좌의 활용은 유효하다. 감정계좌 아이디어를 활용해보라.

<Keyword 9. 대퇴사와 저몰입시대의 HR 과제, Employee Retention & Engagement>

대퇴사의 시대, 조용한 그만두기(Quiet Quitting), 번아웃 등의 현상은 Retention과 직업몰입을 HR의 핵심 이슈로 만들고 있다. CEO의 관심 또한 Retention과 몰입 순위가 높으며, 리더 Pool도 약해지고 있다. HRD는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회사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MZ는 성장을, 베이비부머는 보상을 말한다. 붙들어두고 싶은 사람을 유지시키고 Quiet Quitting하는 직원을 몰입케 하는 것이 대퇴사와 저몰입시대의 HR 과제라는 말에 공감한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끝으로 휴넷 ATD23 디브리핑의 압권은 page 111의 ‘HRD의 미래 방향에 대한 요약 ...’ 이다. 바쁜 분은 이 페이지라도 읽고 성찰하기 바란다. 재학습 하는 마음으로 옮겨본다.

HRD의 미래 방향에 대한 요약 ...

1. Skills(새로운 표준으로) : 역량 중심의 HRD는 급변하는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계를 보여, 역량보다 작은 단위인 스킬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2. Why & What(비즈니스 성과, 경력개발) : 변화의 방향은 조직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성과를, 학습자 차원에서는 그들의 경력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2. How/When/Where(하이브리드, Workflow) : 방법/시간/장소 측면에서는 워크플로우 러닝(일과 학습의 결합)을 구현하고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러닝이 대세가 될 것이다.

3. Who(자기주도 학습) : HRD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학습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4. AI & Eco System : 인공지능과 Eco System으로의 접근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HRD 실행에 있어 인공지능과 Eco System 이 두 가지 기술의 핵심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MEMO

.....

.....

.....

.....

.....

.....

.....

.....

.....

.....

.....

.....

.....

.....

.....

.....

.....

.....

.....

.....

.....

.....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III

SESSION2

종합토론

김 경 희(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 영 화(경남평생교육진흥원 팀장)

이 우 완(창원특례시의회 의원)

김 태 호(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장)

종합
토론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1

평생교육체제 재편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정책 제언

김 경 희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평생교육체제 재편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정책 제언

김 경 희(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시대에 창원이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평생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희수 교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창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변화의 기회로 전환하여 대도약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도전이 함의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창원의 지역 발전과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은 더 이상 지역에 단순히 존재하는 대학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학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도 지역인구 감소,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이 구분우 연구위원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이 처한 위기상황이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 평생학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존 대학 역할 수행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혹은 확장된 역할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효과적인 지역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방소멸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대학의 역할은 기존의 학위 교육과 학문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이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창원이 대도약하는 변화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확장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대학은 지역 구성원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위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과정, 즉 직업 역량 교육, 자격증 프로그램, reskilling과 upskilling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생학습 대전환’과 관련됩니다. 즉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 평생학습’에서 ‘재교육·계속교육이 상시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중앙정부 시각에서의 지자체 평가·지원’으로부터 ‘지자체 중심, 지역성장, 활력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시혜적 복지 차원의 평생학습’에서 ‘시민의 실질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으로,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운영’에서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로, ‘전통적 교육 내용과 방식’에서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평생교육’ 등과 같이 지역 구성원의 생애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활동’인 평생학습이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은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의 산업체, 문화예술 단체, 창업 생태계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읽어내고 그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창원시의 도전적 과제인 어떻게 지방소멸 위기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창원시의 지역 발전 과제는 효율성 중심의 경제적 양적 성장거점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와 협력이 장려되어 가치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성숙도시로 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수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대학은 수업 학습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 공유, 협업 프로젝트,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은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직업 역량과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활동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직업을 찾고, 취업 기회를 얻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 활동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LiFE)에 경남과 창원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경남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비전이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과 감동의 고등평생학습 플랫폼 구현’입니다. 특히 창원 지역민들이 원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삶,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주요한 4대 영역, 즉 행복한 가정(평생교육상담보육학과), 행복한 지역(로컬크리에이티브학과, 여가라이프비즈니스학과), 행복한 일자리(비즈니스컨설팅학과, 호텔뷰티디자인학과), 행복한 노후(엑티브시니어학과)와 관련된 평생학습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4대 영역에서의 평생학습과정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비교과과정, 자격과정 등과 연계하여 23세 이상의 초기진학자, 재진학자, 재직자들이 경남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에서 행복한 삶을 찾고, 확장하고, 실현해가는 교육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행복한 삶의 실천 역량을 키워가는 라이프 아티스트(life artist)로 성숙 발전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경남대학교의 성인친화형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의 교육비전은 Miracle! Happy-4-you, UOK입니다. 성인친화형 단과대학의 이름인 미래라이프컬리지를 줄여 Miracle이라하고, 행복한 삶의 4대 영역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지자체, 대학, 시민, 학습자)이 Happy-4-you하고 만족하고 OK할 때까지 경남대학교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소멸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대도약하는 변화 기회를 갖는데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학에게 기대되는 이 새로운 확장적 역할은 창원시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창원의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함께 협력하고 상호지원해야 하는 대학과 창원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먼저 대학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평생학습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대학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지원자나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평생학습 플랫폼의 공동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대학의 노력을 격려하고, 예산, 인프라, 데이터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역할 수행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학과 창원시 모두는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자원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과 창원시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대학과 창원시는 열린 대화와 상호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과 창원시 모두는 지역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공유하여 평생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산업 동향, 취업 정보, 문화 예술 자료, 인구 통계, 교육 수요 등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에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와 정보가 교류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과 창원시는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창원시는 지역 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 토론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2

지방소멸위기, 평생교육으로 극복하자

고영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진흥팀장



지방소멸위기, 평생교육으로 극복하자 - 평생학습일자리를 중심으로 -

고영화(경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진흥팀장)

들어가기

현재 한국은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地方掃滅)**은 지역 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공급, 생활의 애로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합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¹⁾가 언급한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성장 및 발전 불가→주민행정서비스 공급불가→주민생활애로→국가위기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단계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은 다양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멸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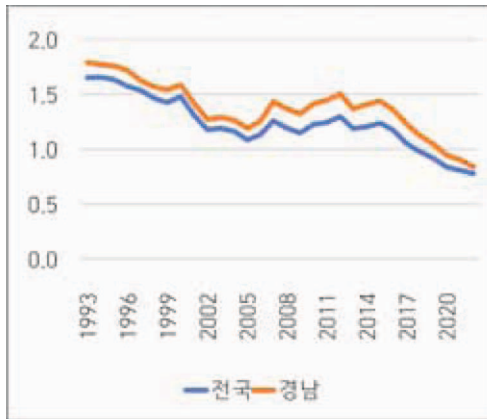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이유로 꼽는 것이 **저출산, 청년 인구의 이동, 고령화**입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계출산율²⁾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남은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9명이며,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값인 자연증가건수는 전국은 2019.11월(-1,685명), 경남은 2019.3월(-178명)부터 지속적인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23.03월 기준 전국은 -7,784명, 경남은 -996명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진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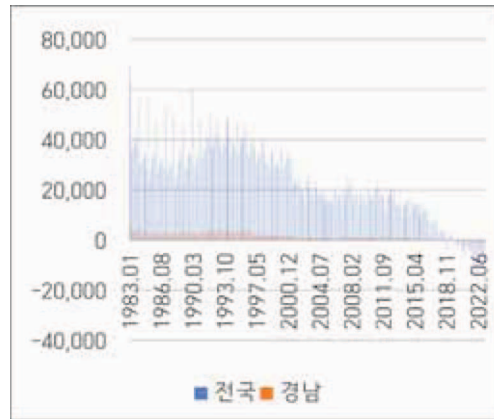
1) <마스다 히로야가 언급한 지방소멸 지역> 2014~2040년 사이에 현재 인구감소 추세라면, 20~39세의 여성인구가 50%이하로 감소해서 지역의 재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방소멸이라고 함. 일본의 시·구·정·촌 가운데 49.8%에 달하는 896개의 지역이 소멸지역에 해당된다고 함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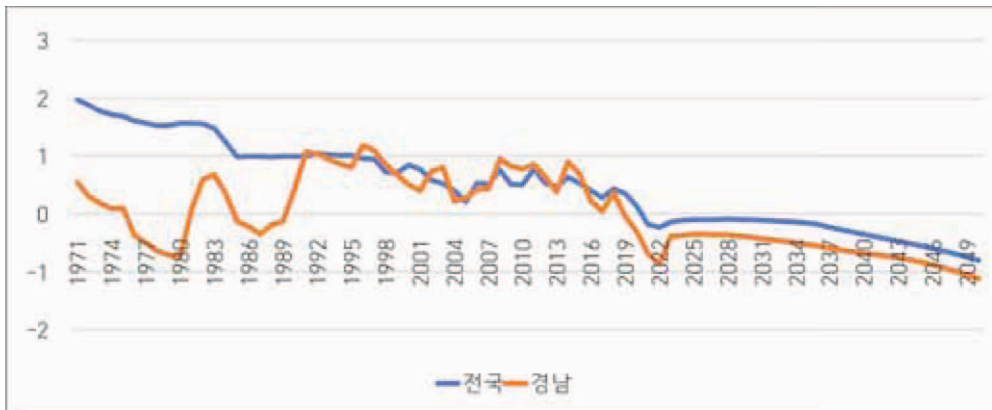
[그림 1] 전국과 경남의 합계출산율



[그림 2] 전국과 경남의 자연증가건 수

특히, 지방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지방소멸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주도하는 것은 청년이며, 그 요인은 **학업, 취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성장률³⁾이 전국은 2021년(-0.18)부터 경남은 2019년(-0.04)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점차적으로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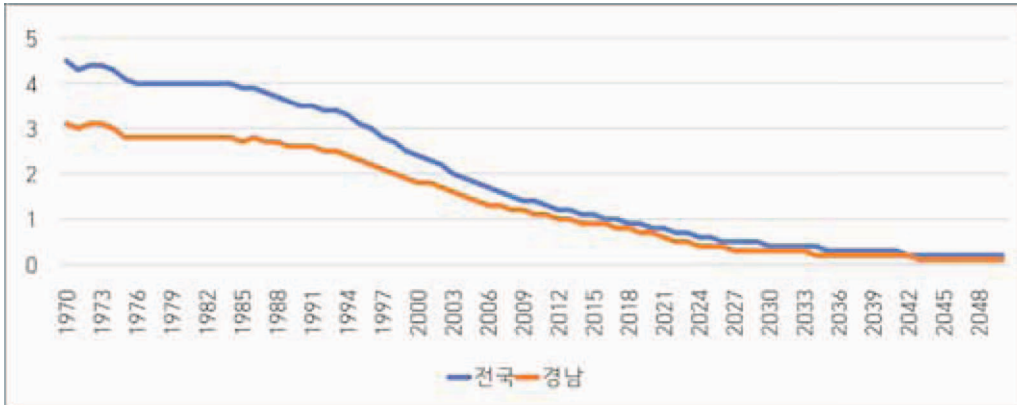
[그림 3] 전국과 경남의 인구성장률(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지역사회의 경제활동과 생산력 저하,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의

3) 인구성장률은 인구변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총인구와 함께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사회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 활용됨. 인구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함

부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 등으로 인구 소멸위험지수⁴⁾는 전국은 1970년 4.5에서 1985년(3.9)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42년 0.2를 예상하고 있으며, 경남은 1970년 3.1로 낮으며, 2034년부터 0.2로 전국보다 빠르게 인구 소멸위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전국과 경남의 소멸위험지수(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지방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중요한 요소

평생교육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평생교육이 개인의 행복 및 발전을 넘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입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입니다⁵⁾.

목적으로 유추해 볼 때 평생교육으로 지역민의 공동체의식 향상은 지역민의 정주의식이 증대,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예: 무위, 고독, 경제

4)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5)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nile.or.kr/usr/wap/detail.do?app=13309&seq=19&lang=ko>)

적 어려움 등) 해소, 개인의 역량 개발 및 강화로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핵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창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창원시는 2004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7)에서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원”을 비전 아래 “평생학습 전달체계 정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창원시 시민대학 평생학습체계 확립”을 목표로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창원		
목표	1 평생학습 전달체계 정비	2 권역별 특성화 평생학습 개발	3 창원형 시민대학 평생학습체계 확립
전략	거점 평생학습관 건립 기관 유형별 기능 정립	5개 권역 맞춤형 평생학습 개발 및 지원	창원형 시민대학 모델 확립 및 확산
추진과제	1-1. 1 평생학습관 5권역 평생학습센터 구축 1-2. 기관 유형별 평생학습 가능 역활 정립 1-3.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평생학습관 운영 1-4. 공간공유 “창원배움터” 확산 1-5.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 센터 디지털 교육 제공 1-6. (가칭)원클릭 평생학습 플랫폼	2-1. 권역별 미래 시민 특성화 평생교육 개발 2-2.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확대 배치 2-3. 감사은행 등록 감사 신규 강좌 기획 공모 2-4. 시민 제안(가칭)우리모임 개설 지원 2-5. (가칭)창원 이야기 평생교육 시민강사단 2-6.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 제공기관 제휴 확대	3-1. 평생학습관 「(가칭)창원 시민대학」 운영 3-2. 3대 경제권역 맞춤형 단기 학위과정 개설 지원 3-3. 온·오프라인 사내교육 평생학습 개설 지원 3-4. 다문화 커뮤니티 「글로벌 센터」 운영 3-5.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6. 희망 나눔 평생학습

[그림 5] 창원시의 평생학습도시 비전⁶⁾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및 개인역량 향상)평생학습관 「(가칭)창원시민대학」 운영, 3대 경제권역 맞춤형 단기 학위과정 개설 지원,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평생학습관 5개 권역 평생학습센터 구축, 공간공유 “창원배움터” 확산, (가칭)원클릭 평생학습플랫폼, 온오프라인 사내교육 평생학습 개설 지원, (학습취약계층 지원)다문화 커뮤니티 「글로벌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동체 역량 강화)시민제안(가칭)우리모임 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평생학습도시 창원은 지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및 개인

6) 창원특례시(2022).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역량 향상,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원은 주민들의 고른 학습기회 제공 및 주도적 학습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개인의 직업적 역량 향상 및 개발을 통한 취·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은 아쉽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확대가 가능한 **평생학습일자리 사업**을 제안합니다.

평생학습일자리 창출 필요

평생학습일자리는 지역주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 재능,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 일자리**입니다⁷⁾.

평생학습일자리 유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 및 가치를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표> 평생학습일자리의 유형과 개념(김진화, 2022)

유형	대상	목적	가치와 정의	수입형식	사례
생애취업형 일자리	학습자	생애적 고용가능 증대	(평생학습의 고용노동력 가치) 현대사회에서 모든 지역주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생코스와 생애단계에서 요청되는 직업적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여 각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획득한 일자리	가능적 근로임금	• 청년층 취업 • 은퇴자 재취업 • 경력단절자 재취업 • 이직자 재취업 • 노인일자리
자활학습형 일자리		경제적 자활능력 개발	(학습복지수혜의 경제적 가치) 지역의 약자/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아 자활의지와 역량개발의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일자리	학습복지 자활금	• 학습형 공공일자리 • 사회적 동반일자리 • 자활학습사업일자리 • 지역사회공동체일자리
실천공익형 일자리		활동적 시민자본 확산	(평생학습실천의 공익적 가치) 지역주민이 활동하는 평생학습실천의 가치 를 공익적으로 인정받아 시민활동금료를 수령하는 시간선택형 사회적 일자리	시민활동 공익임금	• 지역해설사 • 평생학습활동가 • 행복학습매니저
지식창업형 일자리		창조적 지식사업 경영	(지식창업의 시민참여 가치) 지역주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생성한 지식 /기술/재능을 사업아이템으로 개발하여 사 회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	지식경영 사업수익	• 지식창업일자리 • 지식협동조합일자리 • 지식서비스업일자리
시민지식형 일자리	교육 및 현장 전문가	사회적 시민지식 촉진	(시민지식콘텐츠의 사회적 가치) 전문지식을 갖춘 지식시민으로 성장하여 생활세계와 공익적 학습영역에서 전문지식 과 재능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일자리	사회적 강사로	• 시민강사 • 주민강사 • 평생교육강사 • 시민평생교육사
학습시장형 일자리		소비적 지식시장 확대	(전문지식의 평생학습소비 가치) 지식경제와 학습시장의 급속한 확장으로 지식콘텐츠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소비가 치를 창출하고 경영하는 일자리	전문강의 수입금	• 전문강사 • 유명강사 • 컨설턴트 • 평생학습경영자
전문한정형 일자리		전문적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중사자의 전문직업적 가치) 민간/공공/시장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소비자와 고객의 지속적인 평생학습실 천과 생활화를 지원하는 전문 일자리	전문적 근로임금	•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 •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 • 시장영역 평생교육기관

7) 김진화 외(2015). 부산형 평생학습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이와 같은 평생학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을 넘어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능력제고**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산업/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일자리 능력제고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평생학습일자리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환경, 기관, 지역산업 등과 연계할 때 성공적인 평생학습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관내 대학이 많고, 기업도시로서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직업훈련시설,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하여 차별화된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평생학습일자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확대 및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에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기본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며, 국가(예: 평생학습진흥지구 사업)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예: 시군평생학습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가기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창원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평생학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시는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 역량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자리 관련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인구유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지역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일자리 창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개인 및 지방의 경제력 향상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는 평생학습을 통해 함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 토론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3

평생학습체제 재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우 완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평생학습체제 재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우 완(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평생교육법 제2조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활동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학습자를 주체의 자리에 놓으려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 평생학습이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체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평생교육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시는 최근 평생학습체제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창원시 평생학습체제 재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창원시 평생학습체제 재편 추진 계획을 통해 창원시의 평생학습체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시대적 요구와 중앙정부의 의지에 부응해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 ②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 ③ 기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④ 수요자 관점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마련해 정책 접근성과 수용성 강화
- ⑤ 사업의 광범위성을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기 사업을 선별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확대강화

조금 더 간단히 요약하면, 취미·교양 위주의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 전환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시민역량 강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전후 정년퇴직은 너무 이르다. 신중년이라 불리는 이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

다면 OECD 국가 중 1위인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바뀌는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직업교육은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취미·교양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남는다.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60% 이하로 줄이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4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이러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합당한가를 논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의 수요가 따라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평생교육이 성인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평생학습의 수요자 역시 성인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한다. 평생학습의 수요자 역시 전 연령대를 포함하기에 평생학습체제에서도 각 연령대의 학습자들의 수요가 고려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평생학습체제의 고민은 전무해 보인다. 학령기 청소년들의 학습요구는 전적으로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선 발제에서 창원시 인구유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년 인구유출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년 인구유출은 인구 100만 도시 사수라는 창원특례시의 제1의 시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나기도 하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싫어서 떠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청년 인구유출을 줄일 것인가? 창원시 차원에서 청년 인구유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원 관내의 기업이 청년을 정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임금의 일정액을 창원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기 위해 의과대학과 로스쿨 유치에도 민·관·학이 함께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청년 인구유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의 청년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청년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 평생학습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청

년은 처음부터 청년이 아니었다. 청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창원을 떠난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이라는 처방전은 청소년기에 써야 그 효과를 청년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생학습의 수요자 그룹에서 청소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너무나 유명한 격언이 있다.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교사가 되어 ‘내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울 때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 마을과 고장,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온 마을의 관심 속에서 자란 청년과 청소년기에 학교, 학원, 집만 오가며 자란 청년이 느끼는 마을과 고장에 대한 애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애착 관계는 대학 진학을 위해 창원을 떠났다가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렬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평생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이 점령하고 있으나, 일찌감치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고 꾸준히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온 창원시에서는 작은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등이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만든 마을교육공동체인 마을학교가 그 역할의 일부를 맡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마을이 학교가 되어주고, 마을주민들이 마을교사가 되어 학습의 장을 만들어가는 곳이 마을학교이며 현재 창원시에는 20개의 마을학교가 운영중이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의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마을교과서를 만들고 그 마을교과서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배우는 탐방수업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창원시에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그리고 각종 문화센터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시설이 존재한다. 각각의 평생학습시설은 제각각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시설마다 개설된 프로그램에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보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원의 개설 프로그램 수가 더 많다는 것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프로그램이 수영이나 승마처럼 스케일 큰 프로그램이 섞여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수업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한다.

이렇게 비슷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여러 평생학습시설에서 중복적으로 개설되는 것에 대해 창원시 평생학습체제 재편을 통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작은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교과연계 프로그램과 교양관련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가 취미와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이 스포츠, 직업 및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각 시설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등으로 수준별로 다르게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종합
토론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04

창원시 평생교육 체제재편 방향과 과제

김 태 호

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장



창원시 평생교육 체제재편 방향과 과제

김 태 호(창원특례시 평생교육과장)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22.12.28.)됨에 따라 평생학습 도시에서도 하나둘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창원시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아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필요로 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고 싶은 창원,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창원을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도 함께 담겨 있다.

주제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원특례시는 타 지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인구 추이로 본다면 104만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했던 창원특례시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을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통합 이후 창원특례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109만 1,881명에서 2023년 4월 기준 101만 8,69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오히려 8만 8,000여명에서 17만여명으로 늘어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방대학의 위기로 인해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된 탓이다.

기술혁신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학령기 중심의 교육정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 생애에 걸친 역량향상과 학습 기회의 제공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훈련체계로 인해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생겨나고, 중장년층의 직무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 훈련 중심의 기존 재교육과정으로는 수요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의 위기와 사회 변화 상황에서 창원시 평생교육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범위를 기존의 취미·교양 강좌 위주에서 평생‘직업’교육 분야로 확장하고, 지역산업,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생학습체제를 재편하고자 한다.

창원시 평생교육 체제 재편의 방향과 현황

첫째, 지역의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인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국비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국비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LiFE 2.0 등 대학지원사업에 창원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2025년 도입되는 RISE체제에 대비하는 시도-지자체-대학 협력 거버넌스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준비도 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고등교육의 혁신에 동참하여 지역 대학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 의대 유치, 지역 산업과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지역 대학의 매력도를 높이고 진학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의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함께 산·학·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산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체계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청년층 채용 연계 프로그램,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향상과 직업전환 프로그램, 다문화 시민을 위한 어학·직업·문화융합 프로그램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창원시 3대 전략산업(방위산업, 원자력, 수소)의 맞춤형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특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사업 또한 우리 시 방향에 맞게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취미 교양 강좌에 편중되어 있는 대학 평생교육원을 개편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2023년 하반기에는 성인 직업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창원「내일의 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6개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용 연령층의 확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이전 (구)창원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마산시와 (구)진해시 지역과의 균형을 찾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내 6개 대학의 취창업·진로 지원처와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창원 SW아카데미’를 운영, 현재 1기를 운영 중에 있다. 추후 지역의 관련 산업 및 채용기업을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1995년 전국 최초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인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매우 선도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평생학습센터와 마을도서관 개관 또한 풀뿌리 시민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상임이사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국내외 교육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RCE) 인증을 획득하여 지자체 최초로 교육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룬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출발한 학습도시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창원시는 최초, 선도자라는 성과에만 갇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 또한 하게 된다. 작금의 현실 앞에서 창원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현안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창원시 평생교육 재도약을 위한 과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모두가 말하지만 정작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현실이다. 지역의 위기, 지방 대학의 위기와 함께 평생교육의 중요성,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저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도 지방도 교육예산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있다.

교육부의 2023년 교육분야 예산 96조 158억원 중에는 유·초·중등교육예산이 80조 9,120억원(8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은 1조 4,407억원으로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마저도 연구개발사업, 국제교육 협력 사업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만 놓고 본다면 비율은 더욱 줄어든다.

그나마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11조 가량이 증액되었다. 그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이 8조원이며, 3조 2천억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방향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무적인 성과이기는 하나, 대학이 있는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많으며 여전히 유·초·중등교육예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대부분 지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인프라의 격차가 크며, 평생학습도시들은 자생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2023년 창원시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평생교육과의 교육사업 예산은 약 250억원이며, 평생교육예산은 36억원(14.4%)이다. 교육부의 1.5%보다는 나은 실정이라고 하나 평생교육과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나머지 85.6%(214억원)은 유·초·중·고등학교를 위한 교육경비로 쓰이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살펴보자. 2023년 예산 중 유·초·중등교육 지원예산은 4,817억원(전체 예산의 97.9%)인데 비해, 평생교육예산은 4억5천만원(0.09%)이다.

결국 창원시 전체의 교육예산은 12만5천여명의 학령기 학생을 위해 5,031억원(1인당 402.48만원)이, 나머지 89만여명의 창원시민을 위해 40억5천(1인당 4,531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제5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부합하는 학습도시의 역할 강화를 생각한다면, 현 창원시의 예산구조로는 그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 학령기 학생에게만 집중되는 교육예산의 불균형 해소와 재조정

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창원시의 평생교육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2년 연속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34.5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채무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4,397억원의 채무에 비확정채무인 일반부채까지 모두 합하면 통합부채는 약 1조원가량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되어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이 증액된 75조 7,606억원 규모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경제의 성장과 함께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이로 인해 매년 집행하지 못하는 여유 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이 학교교육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기다리고 있기에 창원시가 처한 지역 위기 상황과 시민들의 학습권 보장은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학령기 학생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재정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여전히 학령기 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평생직업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에 청년, 중장년, 노년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창원시는 시민의 생애전환기마다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도 결국은 자라서 사회의 일원이 된다. 창원지역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라는 온실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 밖을 나와 살아가게 될 정글을 조금은 더 안락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의 시민들이 대학과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게 되는 속도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창원시는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MEMO

.....

.....

.....

.....

.....

.....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

.....

.....

.....

.....

.....

.....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발 행 일: 2023년 7월

발 행 처: 창원특례시

발 행 인: 홍 남 표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전 화: 055-225-2375

홈페이지: www.changwon.go.kr/III

※ 허락없이 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2023 창원시 평생학습 정책포럼

지방 위기를 기회로, 평생교육이 답이다
